

1. 적응증

A

원래 오버덴츄가 임프란트에 쓰여지기는 주로 북미학자들의 생각에 의하여서인데, 오버덴츄는 임프란트가 심어질 골의 양과 질이 충분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로 임프란트 FIXTURE의 OSSEOINTEGRATION이 의심스러울때 보철물을 OVERDENTURE로 만들어 임프란트 FIX-

BALL ATTACHMENT는 임프란트에 측방력을 가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.

하악

하악은 BAR TYPE의 유지장치 및 BALL ATTACHMENT를 다 쓸 수 있습니다. 하악은 최소 2개의 픽스처를 양쪽 전치부위에 심으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임프란트에 측방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의치상을 보통의 의치처럼 충분히 연장하여 조직에 의하여 지지 및 유지를 얻도록 하여야 합니다. 만약 교합력을 임프란트와 조직 두 부분으로 충분히 나누지 못하고 임프란트에 힘이 더 가해지게 되면 FIXTURE의 OSSEOINTEGRATION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.

상악과 공히 BAR를 사용할 때 CANTILEVER는 금기이며 BAR는 그 회전축이 MIDSAGITAL-PLANE의 TRANSVERSE AXIS가 되어야 합니다.

Q : 임프란트오버덴츄의 적응증은? 그리고 만약 오버덴츄를 임프란트를 이용하여 한다면 어떤종류의 유지장치가 좋은가?

TURE주위에 골의 밀도가 높아지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한시적으로 쓰이는 것이 원칙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많이 적용하려하기도 합니다.

2. 유지장치의 종류

— ♪♪♪ —

상악

상악에 OVERDENTURE를 하기 위해서는 상악 좌우 견치부위 2개 그 견치의 후방에 좌우대칭으로 2개를 심어 최소한 4개의 픽처스가 있어야 FIXTURE의 OSSEOINTEGRATION이 파괴되지 아니하고 견드립니다.

이때 사용하는 유지장치는 BAR TYPE의 유지장치가 적절하며



부교수 조성암

경북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 교실